

오늘도 무지개 마을은 밝고 활기칩니다.

구름이와 친구들은 오늘 바다에서 낚시를 할 거예요.  
달이의 눈썰매를 타고 모두 신나게 달려 바다에 도착했어요.  
저 멀리 친구들이 탈 빨간 배가 보이네요.  
배를 탄 친구들은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낚시대를 드리우자, 제일 처음 큰별이의 낚시대가 움직였어요.  
힘 썬 큰별이가 낚시대를 힘차게 들어 올립니다.  
앗, 그런데 잡힌 것을 보고 구름이와 친구들은 두 눈이 휘둥그레 졌어요.

- 구름이 : 큰별아 저게 뭐야?
- 큰별이 : 어, 저거 물고기는 아닌 것 같아.

친구들은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거대한 플라스틱 덩어리였어요.  
각 종 일회용품, 빨대, 비닐봉지가 뭉쳐진 거대한 쓰레기 섬이 였죠.  
냄새도 고약했어요. 친구들은 서둘러 바다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 달 이 : 구름아 저게 뭐야? 저기 거북이 코에 뭐가 있어.
- 구름이 : 어디? 어디? 으악.. 거북이 코에 빨대가 꽂혀 있어.
- 사랑이 : 어떡해.. 우리가 도와주자. 애들아 어서.

달이와 큰별이가 거북이를 바다에서 건져 올렸어요.  
총총이가 약통을 얼른 가지고 왔어요.

- 총총이 : 거북아 잠깐만 기다려. 내가 빨대를 빼줄게. 영차

드디어 거북이의 코에서 빨대가 나왔어요.  
거북이가 눈물을 푹푹 흘리며 이야기 했어요.

- 거북이 : 친구 집에 가려고 이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가 내 코에 콧혀서 빠지질 않는 거야. 너무 아프고 무서웠어.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생명이 위험해졌을 지도 몰라.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구름이와 친구들은 가지고온 비닐봉지와 일회용 물통을 보고 거북이에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낚시 대신 바다를 깨끗하게 청소하기로 결정했지요. 저녁이 다 되어서야 바다가 깨끗해 졌어요.

구름이와 친구들은 거북이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들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로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서로 이야기하고 실천하기로 했어요.

- 구름이 : 나는 이제 일회용 물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할거야.
- 사랑이 : 나는 이제 빨대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 총총이 : 나는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할거야.
- 달 이 : 나는 친환경 제품(칫솔, 치약)을 구매하고 사용할거야.
- 큰별이 : 과일이나 채소까지 씻을 수 있는 1종 비누를 사용할거야.  
그러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거야.
- 달 이 : 플라스틱은 정말 사용하기 편하지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거 같아. 공장에서 플라스틱을 만들 때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지구의 온도가 자꾸 올라가게 되네.
- 큰별이 : 맞아. 지구가 자꾸 뜨거워지면 더운날이 더 많아진다고든가, 비가 오는 날이 많아지게 된다고 했어.
- 구름이 : 작년 여름에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일어난 이유가 바로 이 플라스틱 때문이었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편하다고 평평 사용했었어.
- 사랑이 :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 총총이 : 맞아. 이제 우리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 큰별이 : 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거니까. 해보자.

구름이와 친구들은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기로 약속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꿈속에서 구름이와 친구들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실천을  
했답니다. 모두 행복해지고, 지구도 반짝 웃었어요.